

KIA 가을야구 일등공신 한승혁

투구폼 바꾸고 150km 썩썩
시즌 막판 활약 5위 이끌어
“PS 더 많은 경기 하겠다”

KIA 한승혁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자가 되며 더 높은 고지를 올려보고 있다. 올 시즌에도 한승혁은 KIA를 대표하는 유망주로 출발했다. 150km는 가볍게 넘기는 팀 최고의 스피드와 구위로 매년 기대를 받았던 한승혁이다. 연례행사처럼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호투도 선보였지만 딱 그 만큼이었다. 기대로 시작해 아쉬움으로 끝났던 한승혁의 시즌이었다. 지난 4일 삼성전 홈에서는 그래서 한승혁과 팀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5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 앞서 한승혁은 “전날 등판을 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긴장이 됐다. 첫 타자 구자욱을 처리한 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에게도 무척 중요한 경기였는데 기분이 좋다. 간밤에도 가슴이 뛰어서 몇 번 잠에서 깼다”고 웃었다. 전날 한승혁은 4-2로 앞선 8회 마운드에 올랐다. 박병의 리드 상황, KIA의 5위는 물론 4위 희망까지 걸려있던 경기라 긴장감은 높았다. 지난 27일 LG전 이후 오랜만의 등판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9월 무결점 활약을 해오다가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만큼 한승혁을 보는 시선은 기대 만큼 우러러도 가득했다. 그러나 한승혁은 9회 1사까지 두 개의

탈삼진을 보며 4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지고 마무리 임창용에게 마운드를 넘겨줬다. 결과는 4-2승, 5년 만의 가을잔치였다. 한승혁은 “잘해오다가 부진했다. 예전에도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었다”며 “폼을 바꾼 게 올 시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 팔 스로잉을 짧게 했는데 단순히 (스로잉이) 길고 짧은 걸 떠나서 중심이동을 할 때 손이 타에 올라오는 순간이 빨라지면서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해졌다”고 말했다. 기술적인 변화에 앞서 심리적인 변화가 한승혁의 ‘가을잔치’를 가능케 했다. 한승혁은 “옛날에 던졌던 영상을 다시 봤는데 내가 봐도 폼이 아니었다(웃음). 지금은 안정감있는 모습이 내 눈에도 보였다. 코칭 스태프를 못 믿었다기보다는 내 스스로 확신이 없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했다”며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쉽게 무너졌는데 지금은 버티고 회복하는 힘이 생겼다. 주변에서도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마운드에 오르는 게 재밌다”고 말했다. 부담감보다는 해내고 싶다는 도전 의식과 기대감으로 마운드에 오르게 됐다는 한승혁. 내심 박병의 승부에서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한승혁은 “많이 좋아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더 잘해야 한다. 그



한승혁

래도 경기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신중해졌고 즐기고 있다. 야구 선수에게 포스트시즌은 큰 의미인데 그 꿈을 이루게 됐다. 무엇보다 그 꿈을 이루는데 내

가 역할을 해서 더 기분이 좋다. 포스트 시즌에서 더 많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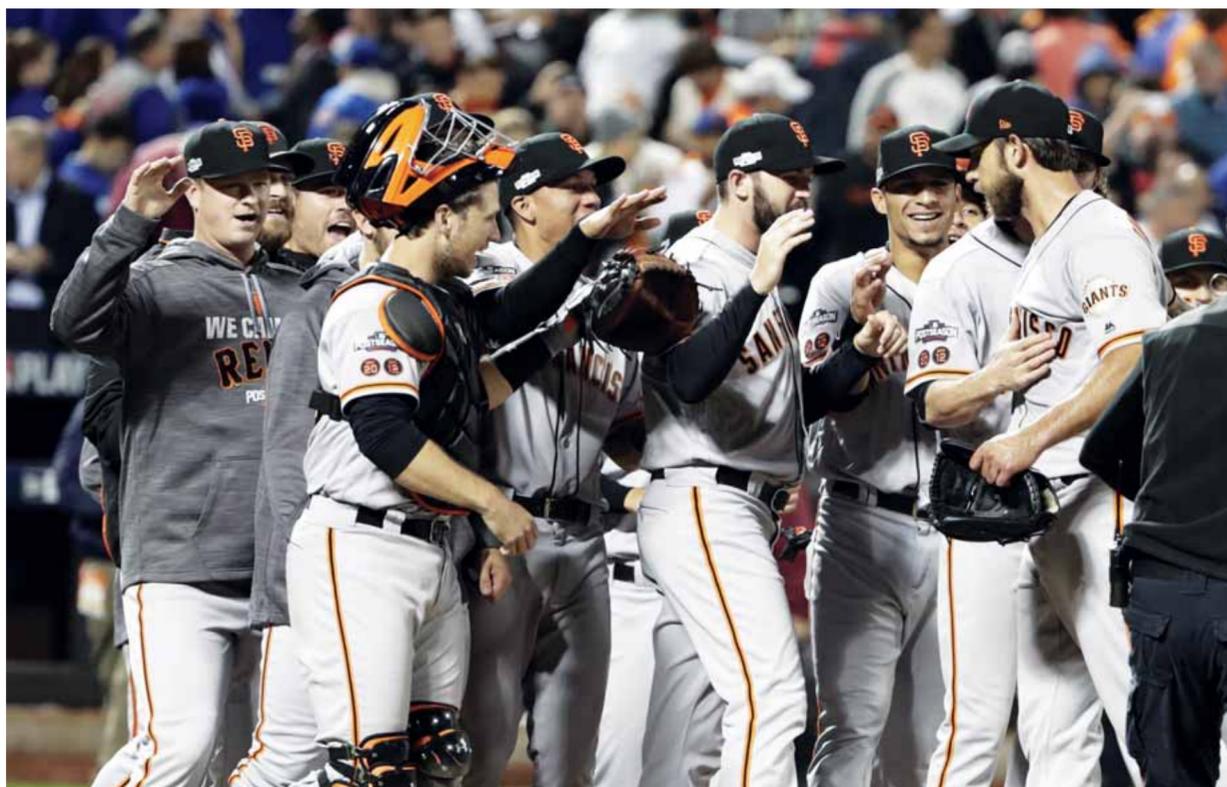
“삼성에 절반만 지겠다” “내년엔 앞자리 앉겠다” 김기태 감독 “약속 지킬수 있어 기뻐”

미디어데이 행사 공약 지켜

KIA 김기태 감독이 올 시즌에도 약속을 지키며 ‘약속왕’이 됐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매년 개막에 앞서 미디어데이 행사를 갖고 팬들에게 인사를 한다. 새 시즌에 대한 사령탑들의 각오와 공약을 밝히기도 하는 자리. 김기태 감독은 고향팀 사령탑을 처음 맡았던 지난해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삼성에 절반만 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몇 년째 계속되어온 지독한 삼성전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김기태 감독의 말대로 KIA는 지난 시즌 삼성전 전적을 8승8패로 균형을 맞췄다. 올 시즌에는 “내년 행사에서는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팬 여러분께 좋은 선물 안겨드리겠다”는 것이 김 감독의 이야기였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는 순위에 따라 각 구단 자리가 배정된다. 지난해 7위인 KIA는 뒷자리에 배치됐다. 그리고 지난 5일 김 감독의 또 다른 약속은 현실이 됐다. SK의 추격을 받던 KIA가 삼성원정에서 4-2 승리를 가져오면서 5강을 확정짓는 것이다. 팬들에게 5년 만의 ‘가을잔치’라는 좋은 선물을 안겨준 김 감독은 2017 미디어데이에서는 앞자리에서 새 시즌의 각오를 언급할 수 있게 됐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독으로 기분이 좋다. 선수, 프런트, 팬들 모두 성원 해주셔서 이룰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마지막 4경기를 남겨두고 끝났었는데 올 시즌에는 선수들이 더욱 상수해줬다. 어제 경기 끝난 후 숙소 정문에서 일일이 선수들 손을 잡고 인사를 했다. 감독을 믿고 따라 준 것에 감사하



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올 시즌 ‘주장’으로 그라운드 안팎에서 좋은 활약을 해준 이범호에게 특별한 마음을 전했다. 김 감독은 “다른 선수들도 잘해줬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주장 이범호는 100점 만점에 만점을 줘도 모자랄 정도로 잘했다”고 언급했다. 더 좋은 꿈을 꾸어 한다고 말한 김 감독은 오는 8일 한화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KIA에서의 두 번째 정규시즌 일정을 마무리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샌프란시스코는 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단판 승부에서 '가을의 화신' 매디슨 범가너를 앞세워 뉴욕 메츠를 3-0으로 제압하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범가너 있기에... 샌프란시스코 또 짝수해 기적?

와일드카드 결정전 완봉승
메츠 잡고 NLDS 진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가을의 화신' 매디슨 범가너를 앞세워 내셔널리그(NL) 디비전시리즈(DS)에 진출했다. 샌프란시스코는 6일 미국 뉴욕 시티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단판 승부에서 뉴욕 메츠를 3-0으로 제압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8일부터 시카고 컵스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에서 격돌한다.

현역 투수들 가운데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강한 면모를 보이는 샌프란시스코의 에이스 범가너가 또 한 번 가을야구 무대를 지배했다. 범가너는 메츠 타선을 9이닝 동안 4피안타 2볼넷 6탈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는 완벽한 투구로 포스트 시즌에서만 8승(3패 1세이브)째를 수확했다. 범가너는 2년 전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9이닝 4피안타 10탈삼진 완봉승을 거둔 바 있다. 샌프란시스코 선발 범가너와 메츠 선발 노아 신더가드의 맞대결은 둘의 정규

시즌 성적만큼이나 팽팽하게 전개됐다. 범가너는 올 시즌 15승 9패에 평균자책점 2.74를 기록했고, 신더가드는 14승 9패에 평균자책점 2.60을 찍었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닝 소화 능력이다. 정규시즌에서도 신더가드보다 42이닝을 더 던진 범가너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더 오래 마운드를 지배했고, 그것이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7회초까지 신더가드에게 삼진 10개를 헌납하며 2안타 3볼넷 무득점에 그친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신더가드가 내려간 뒤 비로소 긴 잠에서 깨어났다. 샌프란시

스코는 8회초 바뀐 투수 에디슨 리드를 상대로 안타 1개와 볼넷 2개로 2사 만루의 기회를 얻어냈다. 비록 득점에는 실패했으나 경기 주도권을 가져온 샌프란시스코는 9회초 선두타자 브랜던 크로퍼드가 상대 마무리 제우리스 파밀리아에게 좌중간 2루타를 뽑아냈다. 계속된 1사 1, 2루에서 코너 길라스피가 스리런 홈런 터뜨려 결승점을 뽑았다. 범가너는 9회말에도 등판해 요에이스 세스페데스-커디스 그랜더스-T.J. 리베라를 끝까지 범타 처리하고 경기를 마무리했다. 투구 수는 119개. /연합뉴스

윤석민 “시작해보려니 시즌 끝났네요”

덕아웃 T 특특

▲도박이죠 = 김호령에게는 도박 같은 질문이었다. 김호령은 전날 삼성과의 경기에서 1-1로 맞선 5회 1사 1.3루에서 타블 스틸로 홈으로 뛰어들었다. 팽팽했던 승부, 뒤러는 자와 막으려는 자의 눈치싸움도 치열했다. 김호령의 질주를 간파한 상대 배터리가 중간에 공을 차단해 홈에서 승부를 했지만 김호령의 손이 빨랐다. 김호령은 “들어오는 순간 세이프라는 걸 확신해서 기분이 좋았다. 어쩌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타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상행선을 탈지, 하행선을 탈지=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순위 싸움에 5일 경기 전까지 KIA의 행선지도 알 수 없었다. 이날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8일 최종전까지 4-5위가 확정되지 않는 혼전의 상황. 5일 홈 마지막 경기를 치른 KIA는 8일 대

전에서 한화와 올 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5일 경기 전 최종전에 관한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은 “혹시 몰라서 4~5일치 짐을 싸두고 가야할 지도 모르겠다”며 “그날 경기 끝나고 (잠실로 가는)상행선을 탈지 (광주 오는) 하행선을 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시작하려니가 끝이네요=시즌은 빠르게 지나간다. 올 시즌 윤석민에게는 더 시즌이 짧게 느껴진다. 홈 최종전이 열린 5일 윤석민은 “이제 시작해보려 하니 시즌이 끝난다”고 멧찍은 웃음을 지었다. 올 시즌 마운드의 핵심 선수로 주목받았던 윤석민은 개막 후 세 경기에 모습을 드러낸 뒤 어깨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8월30일에 다시 마운드에 돌아오면서 5일 경기 전까지 16경기에 출전하는 데 그쳤다. 윤석민은 “더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쉽다. 마지막까지 좋은 경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현수 향한 캔 투척 부끄러운 일”

토론토, 볼티모어 선수단과 메이저리그 팬에 사과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 구단이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일어난 관중의 맥주 캔 투척 사건에 성명서를 내고 사과했다. 토론토는 6일 “전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관중이 그라운드로 이물질을 던졌다.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고, 유감을 표한다”며 “우리 구단은 볼티모어와 팬들, 이 사건에 놀란 모든 메이저리그 관계자에 깊이 사과한다. 우리도 한 개인의 무책임한 행동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와일드카드 결정전 7회말에 볼티모어 좌익수 김현수(28)는 멜빈 엠펜 주니어가 왼쪽 펜스 근처로 날린 타구를 잡는 순간 자신을 향해 날아든 맥주캔을 발견하고 놀랐다. 다행히 캔은 김현수 옆에 떨어졌고, 김현수는 공을 잡았다. 볼티모어 중견수 애덤 존스가 관중석을

향해 강한 불만을 표했고, 경찰이 외야석으로 출동했다. 토론토는 “올 시즌 내내 캐나다 팬은 열정적인 응원을 보냈다. 그런데 구단 역사에 남을 짜릿한 경기가 열리는 중 관중 한 명이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매우 불행한 상황이었다”고 곱씹었다. 이어 “우리 팬과 스태프, 선수들은 물론 방문팀 선수와 팬의 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을 찾고자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보안 강화와 음주 정책 등에 힘쓰고, 다시는 이런 개인의 일탈 행동이 경기장에 일어나지 않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 경찰은 맥주캔을 던진 관중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론토 경찰이 팬을 퇴장시켰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으나 실제 그 관중은 경찰이 외야석에 도착하기 전에 자리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